스토리

모처럼의 휴일을 맞아 동글동글 동글이는 산 속을 굴러 등산을 하고 있었다. 간만에 얻은 휴일이라 좀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보고 싶었던 동글이는 산책로를 벗어나 풀숲을 헤치며 굴러갔다. 온 몸을 찌르는 뾰족한 돌들, 까칠하게 스치는 나뭇잎 그리고 눈 앞에 펼쳐진 어두운 동굴의 입구.  
동글이는 약간 망설였지만 이내 두근대는 모험의 설렘을 참을 수 없어 동굴에 들어가기로 한다. 어둡지만 넓지않아 벽에 몸을 맞대고 천천히 들어가기를 잠깐, 바로 앞의 낭떠러지를 인지하지 못한 동글이는 그만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.  
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곳은 동굴과는 다른 느낌의 하얀 방. 한기가 동글이의 몸에 스며들어 오금을 저리게 한다.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거늘! 동글이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본다. ‘오른쪽으로 나아가려면 D’. 의미를 알 수 없는 흐릿한 글씨가 보이고 이내 W는 점프, A는 왼쪽, S는 내려가기 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아차리게 된다.  
오른쪽으로 조금 굴러가니 ‘살아남으려면 너를 떼어내야 해 ->로’ 라는 글귀가 보인다. 살아남으려면…… 위험이 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눈치챈 동글이는 마음을 가다듬고 오른쪽으로 굴러가기 시작한다.  
어느정도 굴러왔을까 뒤에서 딱딱한 소리가 들려온다. 뒤를 돌아보니 동글이가 살던 마을에선 본 적 없는 각진 모양의 생명체가 소리를 내고 있었다. “저기……” 말을 걸어보려던 동글이는 각진 생명체의 습격에 당해버리고 만다! 갑작스러운 공격을 맞고 쓰러져버린 동글이. 정신을 차린 동글이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랐지만 이 곳은 아까 떨어졌던 하얀 방. 거짓말처럼 눈 앞에 쓰여진 똑같은 글귀에 동글이는 소스라친다. 살아남으려면 방향키로 나를 떼어내야만 한다. 동글이는 아까와 같은 위치에서 각진 녀석을 또 만났다. 살아남아야 한다. 거침없이 자신을 떼어내 공격하는 동글이. 각진 생명체는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고 이내 모습이 사라진다. 떼어낸 부분이 따갑지만 이대로 여기서 머무를 순 없다. 동글이는 수많은 각진 생명체들을 물리치며 앞으로 나아간다.  
선대 동글이들이 남긴 흔적을 챙기며 오른쪽을 헤쳐 나가던 동글이는 문 앞에 ‘<<>>’ 라고 쓰여진 비밀스러운 방에 들어서게 된다. 방 안엔 각진 모양의 책이 있었고 알아보기 힘들지만 동글이가 쓰는 말과 같은 언어로 글이 쓰여져 있었다. 무슨 실험일지 같았다. 동글이를 각 지게 만드는 과정……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이 간다. 그들은 각진 생명체를 네몬스라고 칭했다. 동글이가 각을 하나씩 가지게 될 때 마다 심해지는 공격성에 대한 연구였다. 수 많은 동글이들을 도려내고 찢고 잡아당겨 늘리고 틀에 넣어 가두고…… 이런 미친 실험을 누가 했는지 동글이는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 경찰에 신고 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다.

**범인 비하인드 스토리**범인이 왜 네몬스를 변형시켰느냐? 사실 네몬스는 범인에 의해 탄생한 돌연변이가 아니다. 던전의 불사의 저주가 동글이를 죽으면 죽을수록 각 지게 만든 것. 범인은 이를 보고 치료제를 만들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몇 번 죽었다 살아났고 한쪽이 모난 형태가 되어버렸다.

**왜 동글이는 각지게 변하지 않았는가?**동글이에겐 탐욕이 없었기 때문. 현재 네몬스가 되어버린 동글이들은 수 백 년 전 힘을 탐해 동굴에 들어온 조상이다. 하지만 탐욕을 먹는 악마를 소환해버려 사악함에 물든 것. 그로 인해 동굴은 사악한 기운이 감도는 던전이 되어버렸고 범인도 몇 번 죽음으로써 이 사악함에 물든 것이다.

1인 개발을 목적으로 기획한 로그라이크 게임. 게임의 볼륨이 크지 않다.  
컨셉 기획 당시 2D와 3D, 횡 스크롤과 탑 다운 뷰의 전환을 통해 연출의 다양성을 넣으려 했으나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해야 할 듯.

처음 범인을 만나면 네몬스를 죽였으니 너도 똑같다고 한다.

만약 네몬스를 죽이지 않고 범인과 처음 조우하면 플레이어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.

두번째부터 만났을 땐 네몬스를 죽였을 경우 범인과 싸운다.

범인을 죽이지 않았을 경우 치료제를 받고 돌아간다. 치료제로 네몬스를 치료하지만 네몬스는 바스러지고 만다.